

中國語 內包節의 非限定性 論議

朴 英 緣* 1)

< 目 次 >

I. 머리말	3) 동사분류에 의한 구분
II. 節의 한정성구분과 공범주원리	4) 동사 분류론의 문제점
III. 諸家의 見解	5) 비한정절 부정론
1) 黃正德(1982)의 한정절 판별 기준	IV. 결론
2) 구조적 분류	<참고문헌>

I. 머리말

일반언어학에서는 節(clause)을 限定節과 非限定節의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주로 空範疇(empty category: EC)와의 관계때문이다. 공범주원리는 지배결속이론에서 핵심개념 중 하나인데, 공범주가 한정절에 출현하는지 비한정절에 출현하는지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보편문법을 지향하여 공범주원리에 따라 개별 언어의 언어현상을 설명하려 한다면 내포절을 한정절과 비한정절로 나누는 것은 기본 전제인 것이다. 이하의 논의를 위해서는 이에

* 成均館大學校 中語中文學科 講師

대한 개념 이해가 필요하므로 2장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다.

절을 이처럼 나누는 것은 대체로 그 절 속에 포함된 동사가 한정동사인 가 비한정동사인가의 여부에 달려있는데 영어의 경우 이것은 주로 性·數 및 時制에 굴절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중국어에는 굴절형태소가 없으므로 동사의 한정성 여부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중국어에는 한정절과 비한정절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굴절 외의 다른 방식으로 동사의 한정성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아래 본문에서는 이들 문제에 대한 諸家の 견해를 제기하고 각각의 경우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적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비한정절의 구분 가능 여부에 관한 논단은 다음기회로 미룰 것이다. 다만 각각의 견해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들 견해가 중국어 구문의 傾向性을 나타내는 것일 뿐 全面的인 것은 아니라는 점과 이들에 대한 보충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II. 節의 한정성구분과 공범주원리

절의 한정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영어 예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 ▶ 한정절(정형절.시제절. finite clause) - 한정 동사(finite Verb) 즉 주어의 시제나 일치관계에 굴절되는 동사를 포함한다. (단 가정법의 조건절은 한정절로 취급한다.)
- ▶ 비한정절(비정형절.부정사절. nonfinite clause) - 동사가 없거나 非限定 動詞 즉 시제나 일치관계에 굴절되지 않는 동사를 포함한다. (이를테면 부정사, 동명사, 분사 등)

1) a. I know [that John hates/*hate Syntax].

b. I've never known [him hate/*hates anything as much as Syntax].

각각의 예문에서 별표 *는 非文임을 표시한다. 윗 예문에서 (a)는 괄호속의 동사 'hate'가 주어 'John'의 성과 시제에 일치하면 正文이나 그렇지 않으면 비문이 됨을 보여준다. 이런 경우 괄호속의 문장(節)을 한정절이라 한다. (b)는 학교문법에서 말하는 소위 원형부정사를 가진 예로서 이때는 동사(원형부정사)가 주어의 성과 시제에 일치되어 굴절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런 경우 괄호속의 문장(절)을 비한정절이라 한다. 이것이 어떻게 공범주와 관련되는지를 보기위해 공범주의 분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다. 여기에서는 촘스키(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LGB)>의 공범주원리를 따르는 것으로 하였다. 이것은 현재 많은 수정이론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이론들의 출발점이고 또 비한정절의 성립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살펴볼 이론들은 대체로 이 LGB의 공범주원리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범주란 音聲的으로 실현되지 않는 명사구를 말한다. 따라서 실제로 發語되지는 않았더라도 이들의 통사적 자격은 문장에 드러나는 명사구와 대등하게 된다. 한편 명사구는 代用性(anaphoric)과 代替性(pronominal)이라는 두 資質의 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대응성(anaphoric)은 再歸性을 말하는 것으로서 앞에 나온 것을 다시 가리키므로 선행사가 있어야 되지만 대체성(pronominal)의 경우는 선행사가 隨意的이며 경우에 따라서 선행사가 나타나면 비문이 된다. 이 자질에 따라 음성적으로 실현되는 명사구와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공범주의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2) 外現的 명사구와 공범주의 유형

외현적 명사구	공범주
[-a, -p] 고유명사(R-표현)	wh-흔적(혹은 변항(variable))
[+a, -p] 재귀대명사	NP-흔적
[-a, +p] 대명사	pro
[+a, +p]	PRO

이들 공범주가 선행사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규정하는 것이 결속이론이다.

3) 결속이론

원리 A : 대응어(+a)는 그 지배 범주 내에서 결속된다.

원리 B : 대명사(+p)는 그 지배 범주 내에서 자유롭다.

원리 C : R-표현(-a, -p)은 자유롭다.

'지배 범주'란 대체로 S'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나올 간단한 예문들 속에서만 S'는 that-절, for-(to)부정사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결속된다'는 것은 동지표표시된다는 것으로 두 명사구가 서로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라는 것이다. 반대로 '자유롭다'는 것은 두 명사구가 각각 다른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위 결속이론에는 원리가 세개 뿐이다. 이것은 PRO가 [+a, +p]자질을 가지므로 위 원리 A, B에 따라 결속되면서 동시에 자유로워야 한다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결속이론으로 다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다른 세 공범주와 달리 PRO는 그에 해당하는 외현적인 명사구가 존재할 수 없다. 이 PRO와 선행사와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통제이론이다. 위 네개의 공범주에서 변항과 NP-흔적은 명사구의 이동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고 pro와 PRO는 기저부에서 생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래 통제이론은 PRO의 통제현상을 다루는 것이지만 PRO를 언급하면서 pro를 함께 논하지 않을 수 없고, 黃正德이 주장한 것으로 PRO와 pro를 묶어서 PRO/pro라 하는 견해가 인정을 받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통제이론에서 pro와 선행사의 관계도 함께 다루고 있다.

현재 논의를 주어 위치에 출현하는 것으로 한정시킨다면 PRO는 비한정절의 주어 위치에 출현하고 pro는 한정절의 주어 위치에 출현한다.¹⁾ 따라

1) 이를테면 영어에는 pro가 없다. 예를 들어 영어에는 "[e] arrived"는 불가능하고 "I arrived"라 해야하는 것이다. 스페인어에서는 "[e] llegué" "[e] llegaste" "[e] llegó" 등이 가능하며 [e] 뒤의 술어는 각각 'arrived'의 1인칭, 2인칭, 3인칭 변화형이다. 이 때 [e]가 pro인 것이다. 이처럼 문두에 주어가 생략되는 것은 중국어나 한국어 일본어에서는 아주 흔한 현상이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굴절

서 이 들을 이용하여 통사현상을 설명하려면 절을 한정절과 비한정절로 나누는 것은 이미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어에는 굴절현상이 없으므로 동사의 비한정성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아래에서는 중국어의 절을 한정절과 비한정절로 나눌 수 있다는 견해와 이러한 구분이 없다는 견해를 살펴볼 것이다.

Ⅲ. 諸家의 見解

1) 황정덕(1982)의 한정절 판별 기준

黃正德(1982)은 중국어에 시제가 체계적으로 표시되지는 않지만 비한정절과 한정절을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한다.²⁾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비한정절에는 양상류(modals)인 ‘會’ 등이 올 수 없다. 아래에서 (5 a) 괄호 속의 문장(절)은 비한정절인데 ‘會’가 오므로 비문이고 (5 b)는 한정절이므로 ‘會’가 올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4) a. * 我 準備 [PRO 明天 會 來].³⁾

b. 我 預了 [他 明天 會 來]. 나는 그가 내일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풍부한 스페인어나 이탈리아어 외에 굴절이 전혀 없는 중국어나 한국어 등에도 pro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을 대명사 탈락(pro-drop)언어라 한다. 이 경우 pro의 출현은 개별 언어의 특징일 뿐 일반화할 설명이 없다. 黃正德은 pro의 출현을 굴절이 풍부한 언어에 나타나는 것으로 한정짓고 중국어나 한국어 등과 같이 굴절이 없는 언어에서 주어 자리에 나타나는 공범주는 PRO나 변항으로 볼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문두에 다시 空操作者로서 空主題를 설정하게 된다. 이경우에 문두의 공범주를 변항으로 본다해도 변항을 포함하는 절이 한정절이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본고에서는 절의 한정성을 논하는 것이므로 절의 주어 자리에 오는 것은 PRO 아니면 pro의 대립으로 간주할 것이다.

2) 黃正德(1982) pp351~353.

3) 시각적 효과를 고려하여 임의로 한자 단어 띄어쓰기를 하겠다.

② 비한정절에는 상표지가 올 수 없다.⁴⁾ 아래 예문에서 괄호 속의 문장은 비한정절이므로 완료상표지 '沒有'가 올 수 없음을 보여준다.

5) *我 勸 張三 [PRO 沒有 買 這本書].

③ 외현적인 주어⁵⁾가 올 수 있다. 아래 예문에서 예문 (6)의 내포절은 비한정절이므로 어떤 것을 가리키든 외현적인 주어⁵⁾가 오면 비문이 됨을 보여준다. 반면 예문 (7)의 내포절은 한정절이므로 어떤 형태의 주어⁵⁾가 오든 모두 정문이 된다.

- 6) a. *我 準備 [我 明天 來].
- b. *我 勸 張三 [他 不買 這本書].
- 7) a. 張三 說 [他 下午 會 來].
- b. 張三 說 [自己 下午 會 來].
- c. 張三 說 [李四 下午 會 來].
- d. 張三 說 [e 下午 會 來].

이상을 정리하면 중국어 한정절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며 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일부만 충족시키면 비한정절이 된다.⁵⁾

- 8) 한정절 판별 기준
 - a. 상표지 了, 着, 過 등이 나타날 수 있다.
 - b. 양상 표지 會, 能, 必須 등이 나타날 수 있다.
 - c. 外現的인 어휘적 주어⁵⁾가 나타날 수 있다.

4) 원문에는 완료상 표지(the perfective aspect marker) '有'만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沒有'가 '了'와 상보적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了'의 변체(variant)로 보는 것이다.

5) 李梅都(1986) p. 143. - 여기에서 黃正德이 비한정절의 특성으로 언급한 것을 정리하여 역으로 한정절의 특성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비한정절이 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한정절 판별 기준을 가지고 이들 중 어떤 요건을 충족시키는지의 여부를 논할 것이다.

굴절형태소가 없는 중국어에 있어서 위와 같은 판별 기준은 확실히 유용한 것이지만 실제 언어에서 反例가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견해와 비한정절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게 된다. 위 黃正德의 기준에 대한 反例는 다음 2절의 2소절에서 제시할 反例와 중복되므로 다음 절에서 함께 언급하겠다.

2) 구조적 분류

다음은 徐思益(1988)과 榮晶(1990)이 제시하는 것이다. 이들 역시 앞에서 제시한 黃正德의 한정절 판별 기준에 근거하고 있는데 비한정절이 주로 어떤 구조에 출현하는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徐思益이 좀더 자세히 논하고 있어 주로 이것을 인용하겠다. 그는 다음의 네 구조에 공범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① 동사구가 주어로 쓰인 문형 ② 명령, 금지를 나타내는 비주술문형 ③ 連動式 ④ 兼語式. 榮晶은 ② 형식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그 외는 徐思益과 일치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① 동사구가 주어로 쓰인 문형

- 9) a. [e] 學好語言 不容易. 언어를 잘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
 b. 小張 學好了語言. 장군은 언어를 아주 제대로 익혔다.
 c. * [e] 學好了語言 不容易.

예문 (9)의 b, c는 '學好語言'이 주술구 주어로 쓰이면 비한정절로서 상표지 '了'가 올 수 없으나 일반 술어로 쓰이면 '了'가 올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② 명령, 금지를 나타내는 명령문형.

- 10) a. [e] 隨手關門. 출입시 문을 닫을 것.

- b. [e] 請 [e] 勿抽烟. 담배를 피우지 마시오.
 - c. [e] 不准 [e] 隨地吐痰. 함부로 침 뱉지 마시오.
 - d. [e] 禁止 [e] 通行. 통행금지.
- 11) a. *[e] 隨手關了門.
- b. *[e] 請 [e] 勿抽着烟.
 - c. *[e] 要不准 [e] 隨地吐痰.
 - d. *[e] 會禁止 [e] 通行.

徐思益은 (11 b, c)가 겹어식과 유사하지만 여기서의 두 [e]는 모두 불특정 사람을泛指하는 것으로 기타 어휘의 '통제'를 받지 않으므로 겹어식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⁶⁾

③ 연동식

- 12) a. 大媽上街 [e] 買菜. 큰어머니는 채소를 사러 시장에 가셨다.
 b. 兒子找爸爸 [e] 要錢.
- 13) a. 大媽上街 [e] 買(了)菜.
 a'. *大媽上街 [e] 買(着)菜.
 b. 兒子找爸爸 [e] 要(了)錢.
 b'. *兒子找爸爸 [e] (將會)要錢.
- 14) a. 大媽(要)上街 [e] 買菜.
 b. 兒子找(着)爸爸 [e] 要錢.
 b'. 兒子(將會)找爸爸 [e] 要錢.

위 예문 (13)은 연동식문형에서 둘째 동사구에 '了'가 와서 완성태를 나

6) 통제이론으로 보자면 전자는 자의적인 통제에 속하고 후자인 겹어식은 필수적인 통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통제의 차이가 과연 문형의 차이인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e] 請 [e] 勿抽烟"는 실제로 "[e_i] 請 [e_j] [(e_j] 勿抽烟]"으로서 e_j끼리는 동지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통제이론에서 겹어가 외현적으로 드러난 명사구일 경우 그 뒤에 공범주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는지의 여부 역시 의문이다.

타낼 수는 있지만 '着'이나 기타 양상류는 올 수 없음을 보여준다. 예문 (14)는 첫째 동사구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徐思益은 연동식의 둘째 술어를 비한정절이라고 본다.

④ 겹어식.

- 15) a. [e] 請大夫 [e] 看病.
 b. [e] 勸他 [e] 好好休息.
 c. 小王, 隊長叫 [e] 下午出車.
 d. 他允許 [e] 另寫一篇.

여기에서 徐思益은 주로 겹어문 문형 분석에 치중하여 둘째 절의 동사는 시대변화가 불가능하다고만 하였고 非文例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⁷⁾

이상과 같은 구분은 확실히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反例가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된다.

- 16) a. [e; 洗了澡] 使 張三; 容光煥髮.
 목욕 한 것은 장삼의 용모를 빛나게 하였다.
 b. [e; 三天沒(有)吃飯] 把張三; 餓壞了.⁸⁾
 사흘간 밥 먹지 못한 것은 장삼을 몹시도 배고프게 하였다.
 17) a. 阿Q在這剎那, 便知道大約要打了, 趕緊抽緊筋骨, 聳了肩膀等候着.
 아Q는 그 때 곧 때리려 한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제팔리 근육에 힘을 주고는 고개를 움츠리고(어깨를 울리고) 기다렸다.

7) 劉月華(1983, p451)에 따르면 겹어식의 첫째 동사는 일반적으로 '了·着·過'를 수 반할 수 없다고 한다. 또 '讓', '叫', '使'를 제외하고 사역이나 認定의 의미를 갖는 동사들은 때로 '了'를 수반할 수도 있지만 역시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 경우 徐思益이 앞에서 연동식의 둘째 동사는 '了'만 이끌 수 있을 뿐 '着'은 이끌 수 없으므로 비한정절이라고 한 것을 여기에 대입시키면 겹어식은 앞 뒤 두 동사가 모두 비한정 동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8) 이 두 예문은 李梅都(1988) p. 171.에서 인용.

- b. 那一點燈光居然鼓舞一個出門求死的人多活了這許多年.⁹⁾
 그 한 조각 불빛은 확실히 집을 떠나 죽으려했던 한 사람을 고무하여 이
 몇 년간을 더 살게 한 것이다.
- 18) a. 小王準備 e 明天去北京.
 b. 小王準備 e 明天要去北京. cf. 我準備 e 明天要去北京.
- 19) a. 首長命令我們 e 在一小時內拿下三六九高地.
 대장은 우리에게 한시간 이내에 369고지를 탈환하라고 명령했다.
 b. 首長命令我們 e 必須在一小時內拿下三六九高地.
- 20) a. 媽媽逼小明 e 吃藥. 어머니는 소명을 다그쳐서 약을 먹게 하였다.
 b. 媽媽逼小明 e 吃過藥.
- 21) a. 誰叫你 e 拿刀的? 누가 너더러 칼을 가지고 있으랬어?
 b. 誰叫你 e 拿着刀的?¹⁰⁾

예문 (16)은 절이 주어로 쓰여도 상표지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문 (17 a)는 연동식의 둘째 동사구에 진행의 '着'이 올 수 있음을 보여 주고, (17 b)는 겹어식의 둘째 동사구에도 상표지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문 (18)~(21)은 역시 연동식이나 겹어식의 둘째 술어(절)에 조동사와 같은 양상류나 상표지가 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동사분류에 의한 구분

앞 2절의 말미에서 제시한 反例들은 확실히 黃正德의 한정절 판별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의 상당부분은 비한정절의 일반적인 상황만을 언급하거나 이들의 출현이 예상되는 구조 전체를 동질적인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비롯된다. 李梅都(1988)는 母文 동사의 성격

9) 이 두 예문은 각각 呂冀平(1987) p. 49, p20.에서 인용.

10) 예문 (18)~(21)은 黃衍(1992)이 黃正德의 관점에서 보면 비한정절이 될 예들에 상표지나 양상류가 올 수 있는 反例로 제시한 것이다. 중국어 母語話者에 검증한 바에 의하면 예문 (18)에서 b는 다소 이상한데 주어를 '小王' 대신 '我'로 바꾸면 좀더 낫다고 한다. 예문 (19)에서 '必須'는 자격이 부사인듯한데 黃正德이 부사를 양상류에 포함시키지는 않는 의문이므로 이 反例는 확실하지 않다.

에 따라 내포절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국어 동사를 네가지로 분류하였다.¹¹⁾

22) a. 유형 A. 통제 동사 (Control Verbs)

통제 동사는 비한정 보어 절을 취하며, 앞 (8)에서 나열했던 특성 중 아무 것도 취하지 않는다. 지배되지 않는 보어절 주어의 정체성은 일반화된 통제 규칙(the Generalized Control Rule)에 의해 결정된다. 통제자는 주어나 목적어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화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b. 유형 B. 절-통합 동사 (Clause Union Verbs)

절-통합 동사 역시 비한정 보어 절을 취한다. 그러나 이 보어 절에서는 상호 표지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8)에서 들었던 b, c의 특성은 취하지 않는다. 모문의 동사와 내포문의 동사가 함께 융합되는 것이다.

c. 유형 C. 예외적 격 표지 동사

(Exceptional Case Marking (ECM) Verbs)

예외적 격 표지 동사도 비한정 보어 절을 취한다. 이 동사는 S를 삭제(deleting)시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어 절에서 직접 뒤에 오는 명사구에 격을 할당한다. 그래서 모문의 주어가 음성적으로 실현된 어휘적 용어(item)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영어에서 believe類 동사와 유사하다. 이 보어 절은 외현적 주어를 가진 하지만 상이나 양상은 나타날 수 없다.

d. 유형 D. 한정절을 이끄는 동사.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유형 A는 企圖, 打算, 計劃, 開始, 準備, 豫備 등을 포괄하는데, 이들은 통제자로 모문의 주어를 취한다. 允許, 鼓勵 등은 모문의 목적어를 통제자로 취한다.

11) 李梅都(1988) pp. 143~152.

- 23) a. 張三 打算 明年 賣房子. 장삼은 내년애 집을 팔 생각이다.
 b. * 張三打算明年會賣房子.
 c. * 張三打算李四明年賣房子.
 d. * 張三打算他明年賣房子.

- 24) a. 我 允許 張三 吃蘋果. 나는 장삼이 사과를 먹도록 허락했다.
 b. * 我允許張三會吃蘋果.
 c. * 我允許張三李四吃蘋果.

유형 B는 設法, 投資, 任意, 努力 그리고 勸, 逼, 請, 叫, 讓 등의 타동사 등을 포괄한다.

- 25) a. 張三 努力 完成了任務.¹²⁾ 장삼은 그 임무를 완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b. * 張三努力了完成任務.
 c. * 張三努力會完成任務.
 d. 張三會努力完成任務.
 e. 那個任務被張三努力完成了 t.
 e'. 那個任務被努力完成了.
 f. 張三把那個任務努力完成了 t.
 g. * 張三努力 [那個任務被完成了 t].
 h. * 那個任務被張三 [努力完成了].

사역 의미(causative meaning)를 가진 동사는 절-통합 자질을 보인다.

- 26) a. 我請張三寄了那封信. 나는 장삼에게 부탁하여 그 편지를 부쳤다.
 b. * 我請張三會寄那封信.

12) 李梅都는 이들 예문에서 '努力'이 동사가 아니라 부사라면 당연히 상표지나 양상류를 가질 수 없다고 스스로 문제제기하고 다음과 같은 예문을 보아 '努力'을 동사로 본다. 즉, '努力'이 부사라면 '慢慢地'처럼 주어의 앞에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데 '努力'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a. 慢慢地張三完成了任務. → (예문 25의) a'. * 努力張三完成了任務.

- c. * 我請張三 [李四寄那封信].
- d. 那封信被我請張三寄了 t.
- e. * 我請那封信被張三寄了 t.
- f. * 張三被我請 t 寄了那封信.

유형 C의 동사는 수가 많지 않다. 예를 들면, 想要, 喜歡, 渴望, 討厭 등이다.

- 27) a. 張三想要贏. 장삼은 이기기를 원한다.
- b. * 張三想要贏了那場比賽.
- c. * 張三想要會贏.
- d. 張三想要 [李四贏]. 장삼은 [이사가 이기기]를 원한다.
- e. * 張三想要 [李四會贏].
- f. * 張三想要 [李四贏了那場比賽].

유형 D의 동사는 說, 認為, 相信, 同意, 證實, 希望, 告訴, 答應, 控告 등이 있다.

- 28) a. 我認為 [張三明年會得到金牌].
나는 [장삼이 내년에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b. 我認為 [金牌明年會被張三得到 t].
나는 [금메달은 내년에 장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 c. * 金牌被我認為 [張三明年會得到 t].¹³⁾
- d. 張三被我認為 [t 明年會得到金牌].
- e. 金牌被我認為 [t 明年會被張三得到 t']

13) 여기에서 내포절의 상표지나 양상류와 관계없는 예문 (c)의 비문을 제시한 것은 이 D류의 동사는 B류의 동사와 달리 절통합 자질이 없음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이를테면 절-통합 자질을 가진 (26 d)는 S'가 탈락되어 受動文으로 만들어도 정문이지만 D류의 경우는 S'가 탈락되지 않으므로 '金牌'가 내포절을 벗어나 수동문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의 d, e의 두 예문이 正文인 것은 그 흔적의 지배범주가 문장 전체이기 때문으로서 보문에서 주어 위치에 온 흔적은 모문의 주어를 그 선행사로 취한다고 설명한다.

李梅都의 이러한 분류는 개별 동사의 의미와 통사 기능에 따라 補文의 한정성을 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므로 비한정성에 대한 연구가 결국 동사 연구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黃正德이나 徐思益의 견해가 다소 추상적인 것에 비해 논의를 구체화시킨 의미가 있다. 특히 본고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분류에서 가치있는 것은 B류의 절-통합동사를 설정한 것이다. 黃正德이 제시한 (8)의 한정성 판별 기준에 대한 반례는 사실 대체로 절-통합동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절-통합동사가 성립한다면 黃正德의 한정성 판별 기준 역시 많은 反例를 해결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 B류의 동사들은 그 補文에 상표지가 나타나는데도 비한정절로 보는가? 이것은 보문의 상표지는 실제로는 母文의 동사에 딸린 것인데 모문 동사에 절을 통합시키는 자질이 있어 상표지가 보문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李梅都는 이들 절 통합동사가 나타나는 문장에는 문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의 상표지만 나타날 수 있는데, 가령 보문이 한정절이라면 상표지가 두개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수동문으로 변형 시킬 때 내포문이 비한정절이라면 직접목적어가 모문의 주어 위치로 이동될 수 있는 반면 한정절에서는 이러한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증거를 들고 있다.¹⁴⁾ 위 (25)~(28)의 예문에서도 이러한 점을 살펴볼 수 있으므로 예문 제시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외에 '把-이동 규칙'을 보면 이들 절-통합동사의 경우는 보문의 목적어를 母文의 동사 앞으로 전치시킬 수 있으나 보문이 한정절인 경우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다음이 그 예이다.

29) a. 張三證實了 [李四偷了那筆錢].

장삼은 [이사가 그 돈을 훔쳤음]을 증명했다.

a'. * 張三把那筆錢證實了 [李四偷了 t].

b. 張三設法 [借來了十塊錢].

장삼은 방법을 내어 [십원을 빌려왔다].

b'. 張三把十塊錢設法 [借來了 t].

14) 李梅都(1988) pp.135~138.

장삼은 십원을 방법을 내어 [빌려왔다].

李梅都의 논의는 이상과 같은 가치를 갖지만 불충분한 점이 있는데 이 점은 절을 바꾸어 논하기로 한다.

4) 동사 분류론의 문제점

(1) 前提의 受容性

앞 절에서는 동사의 의미 및 기능에 따라 보문의 성격이 달라짐을 보았다. 이것은 확실히 내포절의 한정성 및 동사 연구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앞 절의 동사 분류에서는 실례로 제시한 수량이 많지 않아 다른 동사들은 과연 어떤 유형에 속할 것인지 의문 해결이 쉽지 않다. 사실 이것은 현대 언어학의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현대 언어학에서는 심하게 말하자면 동사의 분류만 존재할 뿐 각각의 분류에 속해있는 목록은 제시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believe류' 동사는 예외적 격 표지의 특징을 갖는다고 할 뿐 'believe류'에 어떤 동사들이 속해 있는지 목록을 제시하는 연구서는 거의 없는 것이다. 李梅都(1988)의 분류 역시 이러한 경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는 문제가 좀 달라 보인다. 왜냐하면 영어의 경우라면 'believe'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동사들이 한정절(즉 that-절)과 비한정절(즉 부정사절)을 목적어로 취할 수 있다. 그러나 李梅都(1988)의 분류가 옳다면 중국어 동사는 한정절을 취하든지 비한정절을 취하든지 선택이 있을 뿐이다. 본고에서는 이것을 한정성 판별의 전제라 부르겠다.

30) 내포절 한정성 판별의 전제

- i. 중국어의 동사는 보문의 {±한정성(finite)} 자질에 의해 구분되며 반드시 이 중 하나의 자질만을 가져야 한다.
- ii. 중국어 보문의 한정성은 모문의 동사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이러한 전제가 성립한다면 이것은 사실 '대명사 탈락(pro-drop)'의 여부로 세계의 언어를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의 언어를 구분할 또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 된다. 이러한 전제는 과연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성립 여부를 떠나서 논증 자체로만 말하자면 李梅都(1988)가 제시하고 있는 몇개의 예만으로는 아직 의심의 여지가 있다.

(2) 내포절 의미의 중요성

朴鍾漢(1994)은 李梅都(1988)의 분류가 중국어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고 하고 이것의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박종한(1994)의 논의는 내포문의 통제 관계에 대해 고찰한 것이므로 李梅都(1988)의 동사 분류 자체에 대한 수정은 아니며 또 본고의 논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여기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제시하고 있는 '내포문 통제'는 새로운 관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내포문 통제'란 통제 관계가 모문의 동사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포문의 의미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¹⁵⁾ 이러한 상황은 내포절의 비한정성 문제에도 적용이 되는 듯하다. 앞 (2)절에서 제시한 黃衍(1990)의 예문에서 이런 점을 볼 수 있다.

- 31) a. 媽媽逼小明 e 吃過藥.
b. 誰叫你 e 拿着刀的?

李梅都(1988)에 의하면 (31)의 두 예문에서 '逼'과 '叫'는 공히 B유형인 절-통합 동사로서 내포절의 동태조사는 모문의 동사에서 온 것이다. 그러나 (31 a)라면 이런 점을 받아 들일 수 있겠지만 (31 b)의 경우라면 '着'이 모문의 동사에서 왔다고 보기 어렵다. 이 '着'은 실제로 '~하게 시킨

15) 朴鍾漢(1994) pp. 39~43.

(叫)' 내용중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위 예문에서 나아가 유형 A, B의 동사들이 취하는 補文이 하나의 동사구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32) 我叫他 坐着不動. 나는 그에게 앉아서 꼼짝말라고 했다.

33) 張三打算 明年賣了房子搬家. 장삼은 내년에 집팔고 이사할 생각이다.

이제 C유형 동사인 예외적 격 표지 동사의 예를 보자. 이 유형의 동사에 대해 박종한(1994)은 그 통제 관계와 문형 분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¹⁶⁾

34) 세 번째의 값절 동사의 경우에는 주절의 빈어와 일치한다.

35) 張三想要 [李四] [贏]. 장삼은 이사가 이기기를 원한다.

cf. 27) d. 張三想要 [李四贏].

(34)의 통제 규정을 李梅都(1988)가 직접 제시한 것은 아니다. 사실 李梅都(1988)의 관점에서 예외적 격 표지 동사의 보문에 공범주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다.¹⁷⁾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朴鍾漢(1994)과 李梅都(1988)가 하나의 예문에 대해 문형 분석의 관점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 (35)와 (27 d)는 이들이 각각 접어문과 주술구 목적어

16) 朴鍾漢(1994) pp.35~36.

17) 지배결속이론에서 'believe'류 동사는 보문의 주어가 목적어로 이동하여 공범주를 남기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의미역 기준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경우 보문의 주어는 동시에 모문의 목적어가 된다. 이를테면

a. I believe [_s that Mary is a genius].

b. I believe Mary_i [_s e_i to be a genius].

c. I believe [_s Mary to be a genius].

위에서 b는 인정하지 않고 c만 인정한다. (피터 셀즈(1985) pp68~69)

실제로 다른 A, B, D류는 공범주의 분포와 관련한 언급이 있는 반면 C류 동사는 본고에서 관찰한 한 이러한 언급이 없고 보문의 주어로 재귀대명사가 올 수 있다는 언급(p. 232)이 보이는 정도이다.

문어로 분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李梅都(1988)가 겹어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은 아닌 듯하다. 왜냐하면 A류 통제 동사에서 '允許', '鼓勵' 등은 겹어식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C유형에서 예로 들고 있는 동사들은 전형적인 겹어동사이지만 李梅都(1988)는 실제로 주술구 목적어문으로 해석되는 예들만 다루고 있다고 보아야한다. 다음 예문 (36)은 '喜歡'이 충분히 주술구 목적어를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문 (37)은 '喜歡'이 겹어문을 구성하는 전형적인 예이다. 예문 (38 a)는 李梅都(1988)가 제시한 것이고 (38 b)는 박종한(1994)의 관점으로 예상되는 분석이다.

36) 我喜歡大家一起到海濱游泳.

나는 모두들 함께 해변에 가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37) 我喜歡他個子高. 나는 그가 키가 커서 좋다.

38) a. 張三 喜歡 [他₁ 洗車子]. 장삼은 그가 세차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b. 張三 喜歡 [他] [e 洗車子]. 장삼은 그가 세차를 해주어서 좋아한다.

우선 (37)이나 (38)은 둘다 중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37)은 겹어식으로 해석되며 (38)은 둘다 가능하지만 (a)가 좀더 해석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술구 목적어를 이끄는 '喜歡'을 '喜歡₁', 겹어식을 구성하는 것은 '喜歡₂'와 같이 나눌 수 있다. 이때 '회환' 1, 2 사이에는 아무런 의미 차이가 없다. 그러나 '喜歡₁'의 경우는 C류 동사로 분류되지만 '喜歡₂'는 어떻게 분류되는지 규정해놓은 바가 없다. 만약 '喜歡₂'가 A류인 통제 동사에 속한다면 A류와 C류 둘다 비한정절을 이끄므로 내포절의 한정성 자체에는 차이가 없다하더라도 내포절의 의미에 따라 모문의 동사 성격이 바뀐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朴鍾漢(1994)은 '知道'류 동사의 예를 들어 흥미있는 관찰을 하고 있다.¹⁸⁾ '知道'류의 동사들은 '~라는 사실을 안다'와 함께 '~을 할 줄 안다'라

18) 朴鍾漢(1994) pp.129~133.

고 하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會'와 유의관계에 있으며 이 경우에는 비한정절을 목적어로 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知道'와 같이 의미 내용이 단순한 동사도 목적어의 상황에 따라 多義語로 분석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앞에서 보인 동사의 분류는 하나의 유형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성립하려면 내포절과의 의미 관계 및 중국어 동사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한 보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비한정절 부정론

黃衍(1992)과 徐烈炯(1986)은 중국어에 비한정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요컨대 중국어 동사는 굴절 현상이 없으므로 동사의 한정성 여부를 판별할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¹⁹⁾ 이들의 관점 및 反例는 앞 절들의 논에서 함께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공범주 유형을 잠시 언급한다면 이들은 한정절과 비한정절의 구분 가능성을 부정하므로 공범주의 성격에 관해서도 앞서 제시한 학자들과 견해가 다를 수 밖에 없다. 黃正德이나 李梅都의 경우는 중국어에 변항·NP-흔적·pro·PRO의 네가지 공범주가 모두 존재하며 통제이론에 의해 공범주 pro/PRO의 통제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일반규칙을 포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徐烈炯이나 黃衍은 중국어의 공범주는 이 둘 네 가지로 나눌 수 없다고 본다. 이것은 실제 발화에서 공범주가 나타날 경우 이 공범주가 무엇을 지시하는 것인지 일반 규칙을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테면,

39) *張三_i說 你看見了 PRO_i.

40) 孩子以爲媽媽要責怪 E 了. 아이는 어머니가 야단칠 것이라 생각했다.

19) 논문 전체에 걸쳐 이러한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특히 徐烈炯(1986) p. 76. 黃衍(1992) p. 385.에 擧示하고 있다.

예문 (39)에서 동지표표시 'i'는 본고에서 한 것이다. 황정덕(1982)은 내포절의 공목적어는 모문의 주어를 지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내포절의 공목적어가 대명사적일 수 없고 항상 변항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예문 (39)를 접했을 경우 내포문의 공목적어가 주어 '張三'에 통제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은 徐烈炯도 인정한다. 그러나 徐烈炯의 관점에서는 적절한 문맥이 주어진다면 예문 (39)의 읽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문 (40)에서 공범주 'E'는 제 3자일 수도 있지만 주어 '孩子'를 그 선행사로 해석하는 것 역시 자연스럽다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요컨대 徐烈炯과 黃衍의 견해로는 중국어 문장에서 공범주가 무엇을 지시하는가 하는 것은 화용론상의 문제로서 문맥을 떠난 통제규칙으로는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특징을 강조하여 徐烈炯은 중국어 공범주를 '자유공범주(free empty category:FEC)'라 부른다.

만약 자유공범주가 성립한다면 역으로 중국어에는 한정절과 비한정절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성립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徐烈炯이 제시하는 자유스러운 읽기란 일반적인 읽기가 아니라 특수한 문맥이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에 예외적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黃正德(1987)이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자유스럽지 못한 읽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²⁰⁾

41) *張三, 他, 認識 E.

만약 중국어의 공범주가 선행사를 자유롭게 취한다면 예문 (41)이 비문으로 되는 것을 설명하기가 곤란해진다. 따라서 공범주가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는 상정하기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자유공범주'란 '자유로워야 한다'가 아니라 '자유로울 수 있다'의 의미로 보이며 이런 현상이 존재하는 것이

20) 黃正德(1987) pp.324. ▶黃正德의 이 논문 전체가 徐烈炯(1986)에 대한 비평이며 그는 여기에서 자유공범주를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인 만큼 공범주 연구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IV. 결론

이상에서 비한정절 성립 여부에 관한 몇가지 견해를 살펴 보았다.

비한정절이 존재한다는 견해는 대체로 黃正德(1982)의 논의에서 출발한다. 그의 한정성 판별 기준은 영어의 굴절현상을 중국어의 여러가지 어법현상으로 대체했다는 성과는 있으나 이것을 형식화하지는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徐思益(1987)과 榮晶(1990)은 이것을 형식화하였지만 동사의 의미 특징을 무시하고 특정 구조에 항상 비한정절이 온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李梅都(1988)는 동사의 어휘 내함에 내포절의 한정성 여부를 담고 있다고 보고 동사를 네가지로 나누었다. 이것은 확실히 비한정절 존재론에 대한 앞서의 견해를 발전시킨 것이고 동사 연구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중국어의 동사가 보문의 [±한정성]에 따라 엄격히 구분된다는 전제를 과연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내포문 자체의 여러가지 특성에 따라서 한정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찰이 그 반례로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고찰에서 중국어 동사의 한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는 이들이 나타내는 경향성만을 반영할 뿐 전면적인 것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徐烈炯(1986)이나 黃衍(1992)이 주장하는 자유공범주(FEC)는 비록 중국어 문장에 대한 '일반적인 읽기'를 충족시키지는 않는다해도 일정부분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임은 틀림없다. 따라서 동사의 한정성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위해서는 비한정절이 존재한다는 가정이 타당하다 해도 동사 분류상의 몇가지 문제 및 자유공범주에서 제기하는 화용론상의 통제 관계를 내부에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도서>

- 김용석, <통제이론>, 한신문화사, 서울, 1993.
- 朴鍾漢, <현대중국어 동사 유의어의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 徐烈炯, <Free Empty Category>, <Linguistic Inquiry> 17, M.I.T. 1986.
- 徐思益, <從空語類說開去>, <語法研究和探索 四>, 中國語文雜誌社 編, 北京大學出版社, 北京, 1988.
- 呂冀平 <複雜謂語> <漢語知識講話> 제4권, 上海教育出版社, 上海, 1987.
- 榮晶, <漢語省略·隱含和空語類的區分>, <語言文字學> 1990년 제1기.
- 袁暉·陳炯, <關於句型的確定>, <語言文字學> 1987년 제2기.
- 李梅都, <Anaphoric Structures of Chinese>, 學生書局, 臺灣, 1988
- 趙世開, <語言結構中的虛範疇>, <中國語文> 1986年 제1기.
- 黃衍, <漢語的空範疇>, <中國語文> 1992.5
- 黃正德, <Remarks on empty categories in Chinese>, <Linguistic Inquiry> 18, M.I.T. 1987.
- 黃正德, <Logical Relations in Chinese and the Theory of Grammar>, D. D. MIT, 1982.
- Peter Sells著, 이기용 外譯, <현대문법이론강의>, 한신문화사, 서울, 1990. (原著 1985)
- 앤드류 래드포드, 임흥빈 외역, <변형문법>, 을유문화사, 서울, 1990. (原著 1988)